

예 배	일 시	장 소
새벽 기도회	토요일 오전 7시	예배당
주일 예배	주일 오후 1시45분	예배당
주일학교 예배	주일 오후 1시35분	교육관 5번 교실
청년 기도모임	월 1회	교육관 7번 교실
말씀 나눔 모임	매월 셋째 주일	교육관 5번 교실
성경 읽기 모임	매 주일	교육관 5번 교실
구역 모임	월 1회(구역 별)	구역 별 결정

주일 예배 봉사위원

	10. 13	10. 20	10. 27
대 표 기 도	유미경 집사	김효중 집사	박재기 집사
성 경 봉 독	유미경 집사	김효중 집사	박재기 집사
헌 금 위 원	김효중 집사	박재기 집사	김영희 권사
안 내 위 원	황희순 집사	황희순 집사	황희순 집사

환영 :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.

교회소식

1. 성경 읽기 -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세요(사22~48장)
2. 추수감사주일 -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.
3. 봉사자 기도회-매 주일 오후 12시 45분 유아실에서 모입니다.
4. 감사 - 복독 연합 청년 수련회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.
5. 나눔의 시간 - 여전도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. 감사 드립니다.

교우동정

축하	유아세례 - 양서은 (양승원, 이효실 가정)

지난주통계

주일헌금	
십 일 조	
감사헌금	
선교헌금	
합계(Euro)	

기도제목

1. 육체적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
2. 새로 등록한 교우들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
3. 김선택, 장보경 협력선교사(성진, 예린, 주 허트번, 헝가리) 사역을 위하여
4. 전도, 선교, 구제에 힘쓰는 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

브레멘 한민교회

Bremen Han-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

“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(삼하7:21~29)”



민음의 부요를 보이고
소망의 기쁨을 나누며
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

담임목사 이 상 호 (Sang Ho Rhee)

목사관 : Yperner Str. 7 28259 Bremen
☎ 0421/257 3831 | 0176-7242-4297(Mobile)
E-Mail : josefrhee@hanmail.net

교회 : Anna-Stiegler-Str. 124 28277 Bremen
전차 (Tram) 4번 / 버스 (Bus) 22, 29, 51, 52번
정거장(H) : Kattenturm-Mitte



<http://www.brehanmin.de>

주일 예배 Gottesdienst 추수감사주일

- *송 영 Chor 반주자
- *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
- *찬 송 Gemeindelied 588장다같이
- *성서교독 Wechsellesung 교독문 106번다같이
- *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(새번역) 다같이
- 찬 송 Gemeindelied 590장 다같이
- 기 도 Gebet 정용현 집사
- *성경봉독 Predigttext 시 147 : 7 - 11(구p909) 박예슬 자매
(Psalm 147:7-11)
- 유아세례 Kindertaufen 양서은, 빌2:12~14담임목사
- 설 교 Predigt 감사의 신앙 이상호 목사
- 찬 송 Gemeindelied 591장 다같이
- 성찬예식 Abendmahl 마26:26~30, 228(2,4절) 담임목사
-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314장(1, 2절)..... 김효종 집사
- 교회소식 Information & Begrüßung(새 가족 환영)..... 이상호 목사
- *폐회찬송 Schlusslied 54장 다같이
- *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
- *송 영 Chor 반주자

***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(* Bitte erheben Sie sich)**

성도의 교제 친교실

나의 사랑, 성경

영국 사람으로 유명한 설교가인 D. L. Moody는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기로 서약했지만, 늘 넘어지곤 했습니다.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무디는 산으로 들어가 기도도 하고, 부흥회에도 열심히 찾아 다녔습니다. 그러나 그곳에서 받은 은혜가 한 달을 못 갔습니다. 나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는 마음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무디는 탄식하며 자신을 혐오했습니다.

그러던 어느 날, 문득 펴 든 말씀이 로마서 10장 16, 17절이었습니다. “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” 그는 이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고 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. 그 후 무디는 세계를 복음으로 바로 세우는 신앙의 거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.

성경은 내가 피로할 때 침상이 되었고, 어두울 때 등불이 되었네. 일할 때 연장이 되었고, 찬미할 때 악기가 되었네. 무지할 때 스승이 되었고, 발을 헛디뎠을 때, 반석이 되었네. 이것은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남긴 말이었습니다.

세미폴 이야기 / 정명식

*** 하나님은 훌륭하다고 선택하지 않으시고, 비천하다고 버리지 않으신다.**
- John Flaven -